

# 역사의 총체성과 여성 담론

## —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대상으로 —

안 숙 원\*

1. 공적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 담론
2. 역사의 총체성과 『丙子日記』
3. 여성 서사체로서의 『丙子日記』
4. 맺음말

### 초록

본고는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대상으로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담론을 공적 영역에 편입시키고 여성서사체의 여성적 문학성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작자와 연대가 분명하고 私家의 가보로 전해온 17세기 여성일기인 『丙子日記』가 남성일기였으면 350여 년간이나 공개를 미루었겠는가. 역사적 담론을 논의함에 있어 소위 정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자들로부터 소외된 여성텍스트에 대해 온당한 평가가 있을 때 역사의 총체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丙子日記』는 제목이 병자호란(1636년)을 상기시키는 것도 그렇고 전란의 와중에서 남평曹氏가 피난지를 전전하며 몸소 겪은 전쟁체험기인 점에서 단순한 규방일기가 아니다. 전쟁은 안채에 머물러야 할 사대부집 여성을 '바깥세계'로 내몰아 젠더공간의 확대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물론 『丙子日記』의 작자는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사회의 영향 아래 남성의 섀도우(shadow)인 '남성이 만든 여성'의 삶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서사체로서 『丙子日記』는 개인적/시대적 상치의 진술이 되, 대부분의 내간체들이 억압적 현실에 대한 푸념이나 하소연의 연술인 것에 비해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나, 사실에 치중한 기록성과 간결하고 격조있는 한글표기 문장으로 역사의 구체적 일상성을 획득하고 있는 작품이다.

\* 부경대 강사

## 1. 공적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 담론

전쟁조차도 항속적인 평화가 초래하는 타락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헤겔에게 역사는 단순한 히스토리오그래피(historiography)가 아니라 진보와 진화이다.<sup>1)</sup> 그에게 역사는 보편정신의 작용이며 그 정신이란 이성이다. 대체 역사는 누가 만드는가. 헤겔은 그의 『역사철학』에서 인간을 세계사적 개인과 보전하는 개인으로 나누고 세계사적 개인이 역사를 만든다고 했다.<sup>2)</sup> 세계사적 개인이란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초인이나 영웅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역사진보의 의식적 담지자로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당파이고 투쟁하는 계급이나 계층, 어느 한 편의 대변자이다. 이에 비해 보전하는 개인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인간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끊임없는 자기 재생산 과정을 통해 사회적 보편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sup>3)</sup> 만약 보전하는 개인들이 없다면 민중들은 병자호란이나 6·25 같은 격렬한 전쟁의 와중에서 모두 굶어 죽거나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G. 루카치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지속이 문화발전의 연속성의 토대이기도 하다고 말한다.<sup>4)</sup> 이른바 헤겔의 역사의 총체성(totality)도, 루카치의 전형(type)도, 골드만의 세계관(world vision)도 이런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헤겔이 역사의 주체를 인간 이성에 두었다면 현대의 유물론적 역사가들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회 경제적 구조이고 인간은 그 구조의 전달자에 불과하다거나(L. 알튀세) 구조는 생산의 양식일 뿐 역사는 인간이 끊임없이 그들의 생을 만들고 다시 구성하는 과정(E. 톰슨)으로 보기도 한다.<sup>5)</sup> 맑스도 “인간은 역사를 만들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는

1) 브로노프스키, 차하순 역, 『서양의 지적 전통』(학연사, 1986), p.531.

2) 헤겔, 김중호 역, 『역사철학 강의 I』(삼성출판사, 1982) p.101.

3) G. 루카치, 이영옥 역, 『역사소설론』(거름, 1987), p.38~39.

4) 위의 책.

5) Alex Callinicos, *Making History* (Cornell univ. press. Ithaca. N.Y), p.9.

못한다. 인간은 자신에 의해 선택된 조건 아래서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과거와 만나 과거로부터 주어지고 전해진 조건 아래서 만든다.”<sup>6)</sup>고 했듯이 역사유물론은 주체와 구조에 관한 논점의 이동일 뿐 역사를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발전으로 보는 것은 헤겔주의자답다. 이에 반해 니체에 탕줄을 대고 있는 M. 푸코는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며 주도그룹의 권력에 속한 것들은 지식작용”<sup>7)</sup>이라고 본다. 푸코에게 역사는 불연속적이고 우연적인 사건들<sup>8)</sup>로 담론의 차원인 것이다. 이런 푸코의 계보학이 기원을 거부하고 그 동안 홀대 받아온 여러 시기, 형식, 사태들을 ‘제자리 찾기’ 해 줌으로써 전통적 역사 인식을 교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H. 화이트는 역사기술의 언술 양식을 문제 삼는다. 즉 역사란 사건에 관해서 뿐 아니라 사건들이 제시되는 관계의 집합에 관한 것으로 이 집합은 사건 자체 속에 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보는 역사가의 마음과 그것을 기술하는 역사가의 언어에 존재한다.<sup>9)</sup> 그러므로 역사적 담론에서 사건이란 일어났기 때문에 리얼한 것이 아니라 기억되고 연대기적으로 질서화된 결과 속에서 사건의 어떤 장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한 것이다.<sup>10)</sup> 이처럼 언술 양식을 통해 역사 해석을 시도하는 화이트의 메타역사주의, 푸코의 계보학적 탐색 등을 볼 때 역사의 총체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R. 바르뜨도 역사적 담론이란 사실주의를 가장한 허구의 구성적 연행일 뿐 사실이란 실재를 진정으로 지시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언어적 구성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의미있는 사건을 동기화하는 의도, 행동, 문채(figure),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 등 의미있

6) *Ibid.*, p.10.

7) *Ibid.*, p.11.

8) B. 스마트, 이유동 역, 『마르크스주의와 미셸푸코와의 대화』(민·글, 1993), p.108.

9) Hayden White, *Tropics of Discourse* (John Hopkins univ. press, 1978) p.94.

10) Hayden White, *The Content of the Form* (Johns Hopkins univ. press, 1987), p.20.

는 전체의 부분들로서 그것들을 함께 통찰하는 것이어야 한다(P. 리쾨르).

본고는 소위 역사의 총체성이 헤겔적 의미<sup>11)</sup>에서건, 오늘날 총체적 위기 운운할 때의 그 총체성 개념에서건 그것이 국가 공동체 구성을 아우르는 총칭이라고 할 때 여성의 담론을 배제하고서 역사가 기술되어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논의의 출발점을 삼는다.

히랍 신화에서 역사의 신 클리오(Clio)는 여성이었지만 세속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공적 역사와 같은 공공영역이 ‘바깥일’로 치부된 유교적 가부장사회 한국 여성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었고 당연히 역사의식도 없는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대하면 유교적 영향을 받은 텍스트이긴 해도 병자호란으로 피난살이를 전전하는 동안 젠더공간의 확대는 물론이고 개인적 상처와 시대적 고통이 존재하고 있어 역사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丙子日記」는 역사의 구체적 일상성을 획득한 점에서 남성일기들의 관념성과 비교된다.

역사의식이란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디에 있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sup>12)</sup>이라면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는 우리들의 역사의식의 지평을 넓혀 주는 텍스트라 하겠다.

11) 헤겔은 “전체는 진실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루카치에 오면 리얼리즘의 기준이 된다. 즉 루카치는 문학을 사회, 역사적 총체성을 인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그의 문학적 총체성이란 (1) 삶의 전체적 모습, 이를테면 지리, 풍속, 삶의 일상성을 물질적 토대와 자질구레한 삶의 일상성을 포함할 것, (2) 역사적 삶의 심층에 내재하고 있는 흐름을 제시할 것, (3) 삶과 역사의 총체적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역사가 나아간 방향 즉 역사의 진보 내지 역사의 필연성을 보여줄 것을 가리킨다. 반성완, 「루카치의 역사소설 이론과 우리의 역사소설」(『외국문화』, 1984년 겨울호(제3호)), p.55.

12) Murray Baumgarten, *The Historical Novel: some postulates* Clio IV(1975.2), p.176.

## 2. 역사의 총체성과 『丙子日記』

공적 담론이란 공공의 가치, 관념, 이데올로기 따위를 공개적 토론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담론을 코드화하는 물리적 장소는 당연히 공공영역(public sphere)이 된다.<sup>13)</sup> 그런 점에서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는 양반 사대부집 여성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평曹氏가 겪은 병자호란은 전쟁이란 특수한 시기, 역사적 상황이고 그 때문에 사회 질서가 혼란되어 잡계급의 상향 이동도 가능한 변화의 시기였기에 『丙子日記』는 단순한 여성 서사체를 넘어 역사의 소용돌이를 증언하는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 여성들이 친정집에 초상이 나면 언문제문을 지어 공개적으로 낭독할 수 있었던 것 이외, 담론을 형성할 공적 장소가 없어 내간이나 자서전 같은 사적 영역에 머물렀다면 전쟁이란 토포스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뒤섞이는 경험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 『丙子日記』가 병자호란(1636) 발발 이후 심양으로 세자와 함께 인질이 되어 잡혀간 남편 南以雄이 귀환하기까지 4년간의 기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전쟁이 전경화된 남평曹氏의 생생한 전쟁 체험기이자 공적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선 일기의 장르적 성격을 검토하고 『丙子日記』와 남성 작자들이 쓴 병자호란 관련 일기들인 『山城日記』와 『속잡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 1) 일기의 역사성/문학성

일기는 역사성과 문학성을 가진 독특한 장르이다. 그것은 일기가 일단 과거의 어떤 사실 체험에 관해 쓴 것이고 또 쓰는 사람의 문장력에 의해 예술적 산문의 가치가 결정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일기는 특별한 형식이

---

13) Robert C. Holub, *Jurgen Habermas* (Routledge, London, 1991), p.3.

강제되지 않아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장르이다. 요컨대 일기는 체험을 중시하되, 체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쓰기의 방식이다.

우리나라 일기의 생성과정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왕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의 행적과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실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실록들은 서술자와 서술대상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공적일기의 성격을 갖는다.<sup>14)</sup> 조선왕조 실록이 그 예다. 이같은 공적일기가 사료편집(historiography)으로 언어 전달의 지시적 기능이 우세한 데 비해 사적 일기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기록한 것인 만큼 정서적 기능이 우세하다. 또한 수사적 특징에서도 공적 일기가 공공영역인 외교 문서 교환, 정치적 갈등을 소재로 한 장문의 상소와 같은 논리 싸움 등 설득과 교훈 위주라면 사적 일기는 가정 문제, 개인의 내면적 의식 표출로 독자의 공감을 사기도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 보는 재미에 개인일기를 읽는 것 만한 게 있을까. 학창시절 누구나 친구의 일기를 몰래 훑쳐 본 추억이 있을 것이다. 혹은 부모나 선생님들이 교육적 의도라는 명분 아래 자녀, 학생들의 일기를 읽는 것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일기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이우경씨는 일기를 그 서술 방법에 따라 ① 실록형, ② 기록문(야사), ③ 일기문학으로 나누기도 한다.<sup>15)</sup> 또 일기의 명칭도 日記, 日錄, 錄 외에 記事, 記聞, 史草 등이 모두 일기 형식인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날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은 모두 일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亂中日記』(李舜臣), 『瀋陽

14) 이우경, 『조선조의 일기문학연구』(이화대 박사논문, 1988), p.26.

15)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집문당, 1995), p.37.

이에 의하면 ① 실록형 : 객관적 서술, 실용적 목적, 임금의 언행 중심, 사관이 기록, ② 기록문(야사) : 역사주도층(상급계급), 공적인 내용(역사적 사실) 치중, ③ 일기문학 : 주관성 개입,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은 내용 감상문, 사실성을 바탕을 연대기적 기술, 언어표현의 미감, 작자의 개성 드러남.

日記』(侍講院), 『時政錄』(鄭澈), 『懲毖錄』(柳成龍), 『癸未記事』(작자미상), 『逸史記聞』(작자미상), 『奇育史草』(朴東亮) 등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黑龍日記』는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소설이며 『錦行日記』(恩津宋氏)는 기행가사인 것으로 보아 명칭은 일기이지만 일기와 다른 장르인 것도 있다.<sup>16)</sup>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같아도 이를 수용하는 관점에 따라 어느 한 편을 옹호하기도 하고 다른 편을 비판하는 차이도 보인다. 가령 인목대 비편에서 광해군을 공격하는 『계축일기』나 병자호란 때 척화한 삼학사를 존대하면서 주화파인 최명길에게 반감을 드러낸 『산성일기』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일기에선 역사적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작자에 의해 믿어지고 있는 사실이지 객관적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곧 작자가 말하는 사실은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한 느낌의 정직성이라고 봐야 한다. 일기가 주관적 산문으로서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점에서이다. 결국 일기는 사실도 허구도 아닌 작자의 주관적인 체험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분절된 시간을 의식하고 얼마 동안을 지속적으로 쓴 수필이며<sup>17)</sup> 공적 일기에 가까워지면 역사성이, 사적일기에 가까워지면 문학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후자는 특히 서술자가 그의 개인적 감정에 연루되는 오늘날의 1인칭 소설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sup>18)</sup>

## 2) 『丙子日記』와 병자호란 관련 일기들

『丙子日記』는 『續雜錄』(趙慶男), 『南漢日記』(石芝衡), 『丙子錄』(羅萬甲), 『山城日記』(작자 미상), 『심양일기』(시강원) 등과 더불어 병자호란을 체험한 전쟁일기이다. 이들 전쟁 일기의 공통점은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과 국민들의 피해의식, 전후의 처리문제 따위를 기록함으로써 전쟁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에 있다. 반면 일기의

16) 위의 책, p.22~24.

17) 위의 책, p.304.

18) 박제섭, 『한국근대 고백체 소설 연구』(서강대학원 박사논문, 1993), p.27.

서술 방식과 기록 수단, 젠더에 따라 차이점도 많다. 이 가운데 여성이 쓴 것은 『丙子日記』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남성 작품인데 여기선 『산성일기』, 『속잡록』을 중심으로 대비해 보겠다.

병자호란이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636년(인조 14년) 12월 1일 청 태종 홍타시가 12만 대군을 끌고 우리나라를 침입, 십여일만에 서울을 함락시킨 전쟁으로 우리에게 미증유의 굴욕적인 패배이기도 하였다. 이미 이 전쟁 이전에도 호전적인 청태조 누르하치는 인조 반정(1623년)으로 조선이 중립 외교에서 정책을 선회, 자기네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섬기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정묘호란(1627년)을 일으켰었다. 그때 인조는 강화도로 파천하고 저들의 갖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겨우 항복을 모면했는데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시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으며 다시 조선 침략에 나섰던 것이다. 그는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관운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란 칭호를 받아 청태종이 되어 조선더러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과 청에 대해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 왕자를 볼모로 보낼 것과 황금, 백금 1만냥, 말 3000필, 정병 3만을 요구하며 국경지대 수령과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조선 조정에서도 청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해 있던 터였으나 전쟁 대비는 속수무책이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청 태종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왔고 인조는 황망히 남한산성으로 파천하여 항전에 들어갔다. 조선정부는 근왕병을 모으고 서울 탈환을 시도했지만 전국 각지의 수령들과 구원병들은 청나라 군사의 포위망 때문에 국왕이 있는 남한산성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죽거나 돌아가야 했다. 이 위급한 전시상황에도 조정은 척화파와 주화파로 엇갈려 정쟁이 계속되었고 산성내에 주둔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김유같은 문관들이어서 제대로 공격 한번 해 보지 못했다. 이를 비웃듯 청 태종은 “너희 나라의 의논을 짐작하건대 모두가 선비이니 가히 붓을 쥘아서 나를 막을소냐?”라는 외교문서를 보냈던 것이다.<sup>19)</sup> 문관이 병법을 알았기로서니 전쟁에선 노련한 장수의 지휘 통솔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임진왜란을 통해서도 경험한 바였



오런만 문관 중심의 당시 군대 지휘관 체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는 사이 남한산성은 고립된 채, 항전 45일여, 추위와 굶주림,<sup>20)</sup> 지휘관들의 작전실패로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강화도로 피신한 왕족들이 잡혀오는 등, 청 태종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인조는 1637년 1월 30일 산성을 나와 삼전도 수항단에서 항복하였다. 국왕 자신을 ‘이’등의 서캐같은 ‘소신(小臣), 소방(小邦) 당직(當職)’ 따위로 비하하며 인조는 청 태종한테 세 번 절하고 아홉번 이마를 짓찡는(三拜九叩頭)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청 태종이 세자와 봉림대군, 척화 주동자인 3학사(윤집, 오달제, 홍익환) 등을 인질 삼고 심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 달 이상 청나라 군사들은 서울 근교에 주둔하며 갖가지 행패를 부렸다. 조정은 조정대로 전후 처리에 고심하였는데 곧 관리들의 전쟁 중 공과를 따지는 문제, 수많은 전쟁 고아의 양육문제, 청국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속환 문제가 그것들이었다. 특히 속환은 속가(贖價) 지불과 대신들의 치질자(置質子)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속가는 김유가 자신의 첩과 딸이 포로가 되자 천금을 주는 바람에 그로부터 값이 뛰어 일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고(『산성일기』 『속잡록』) 치자(置子)는 대신들의 적자(嫡子)를 보내야 하는데도 서자(庶子)나 열손(孽孫)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어 당사자들이 파직, 투옥, 유배되기도 했다.<sup>21)</sup> 게다가 속환된 여성들을 요식행위나마 서울 근교 홍제천에서 목욕시켜 ‘환향녀(還鄕女)’로 삼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해당 여성들은 임금의 홍은에 감사했지만 (서울 弘恩洞의 지명 유래) 당시 사회는 ‘화냥년’으로 손

19) 김광순 註, 『산성일기』(형설출판사, 1985), p.18.

20) 이런 사정을 『산성일기』에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날이 춥고 눈이 녹지 않으니 땀감을 얻을 길 없어 개원사(開元事) 행량과 고을 옥사(獄舍)를 열었다”(김광순 註, 『산성일기』, p.62). 개원사는 승군대장 도총섭 벽안선사의 지휘소이자 인조의 아버지 원종의 화상을 모신 숭은전이 있던 절집인데 이것을 허물어 땀감으로 했다니 당시의 절박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21) 치자 교체로 문제가 된 인물들로는 최명길, 이조판서 이경식, 남이공, 평조판서 이시백, 홍보 등이다.

가락질하는 바람에 그들의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참한 패전에도 불구하고 정권 담당자의 반성없이 조선왕조가 지속된 이유는 충효이념 강화로 가족구조에 연결된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시열계 노론정권은 벼슬이 낮거나 벼슬이 없는 학사들을 인질로 보내면서 민생보다 제스츰어에 불과한 북벌계획을 명분으로 내걸고 전후 정국을 수습하려 했다.<sup>22)</sup> 그 결과 국력이 저하하는 대신 18세기 민중의 자생적 사회 경제적 성장은 정권 약화로 이어져 20세기 식민지 전략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H. 블룸(Harold Bloom)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역사에 연루되고 역사와 야만적이며 왜곡되고 탈선된 관계를 맺고 있다”고<sup>23)</sup> 했듯이 병자호란은 역사의 야만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일상성이 송두리째 붕괴되고 가치가 전도되는 전쟁체험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사의식을 낳고 갖가지 기록을 남겨 후대인들에게 증언한다.

이러한 공적 담론은 국가 차원의 공식기록은 물론이고 개인이 쓴 것이라도 남성작가의 저술에 의존해 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개인 일기 중 여성일기가 주로 규방 생활감각이나 사적 영역에 머문 데 비해 남성일기는 사회현상과 그 변화하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강한 역사의식이 나타나<sup>24)</sup>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보면 남성일기 못지 않은 역사의식이 나타나 있다. 1639년 4월 22일 일기를 보자.

---

22) 국왕인 인조도 서인의 장기집권에 속수무책이었던지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리고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꼬리가 굵으면 흔들기 어렵다’고 하더니 서인의 집권이 오래되어 큰 꼬리처럼 흔들기 어려운 것은 괴이하게 여길만한 것이 못된다”(인조 비답 『속잡록』, pp.375~376).

23) David C. Hoy,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문학과지성사, 1988), p.209.

24) 이우경, 앞의 책, p.263.

① 념스념오 우헌랍김광혁이의쥬딕의와셔늑삭교테를말라흐시다흐긔벌을드르니ㄱ이업스며도당의사름도그리업술사

— 『丙子日記』, p.80

② 오늘정스의또대스헌흐시니한성부는일만코하구설만흐니ㄱ르셔도식환흐나대스헌은더심흐타……

— 『丙子日記』, p.322

위 ①은 헌납(獻納) 김광혁이 의주택(작자의 사촌 동서)에 와서 6개월마다 인질교체를 하지 말라는 임금의 말을 전하니 인질교체를 주장할 신하가 그렇게 없더라는 말인가 싶어 한탄하는 것이고 ②는 <오늘 정부에서 남편을 대사헌에 또 임명했는데 그 동안 한성판윤(서울시장)은 일만 많고 구설이 많아 물러나도 시원하나 대사헌은 더 심한> 곳이라 썼다. 오늘날 서울시가 복마전이란 오명을 듣는 것도 이렇게 유래가 긴 것이었구나 생각되고 그런 한성부보다 사헌부는 더 말이 많고 탈도 많다는 평가이다. 관리들의 업무영역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보면 작자의 정치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역사의 총체성, 좁게는 병자호란을 겪은 민족적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丙子日記』가 한낱 사대부가의 규방일기쯤으로 평가 절하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일기의 문학성으로 보아도 『丙子日記』가 단연 남성일기인 『산성일기』나 『속잡록』보다 개성적이다.

『丙子日記』와의 대비를 위해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남성일기 중 『산성일기』와 『속잡록』을 검토해 보자.

『산성일기』는 작자, 연대 미상으로 나만갑이 쓴 『병자록』이 원텍스트라고 알려져 있다. 『병자 남한일기』로도 불리는 『병자록』은 한문인데 『산성일기』가 『병자록』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르고 한글 표기여서 후자를 전자의 번역본으로 보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병자록』이 매우 주관적이고 생생한 그날 그날의 일기인데 비해 『산성일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약술하고 있고 『병자록』에 없는 후금의 역사가 『산성일

기』의 서두에 기술된 점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우경은 『산성일기』가 『병자록』과 관계는 있되 그대로 번역했다기보다 『병자록』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의 줄거리를 약술하여 누군가가 후에 쓴 작품<sup>25)</sup>이 아닐까 하고 추정한다.

본고의 관심은 텍스트의 원전비평에 있지 않기에 『산성일기』와 『병자록』의 친연성은 길게 논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산성일기』는 반듯한 한글 궁체의 아름다움(낙선재본)이며 소설이나 희곡처럼 <발단-전개-결말>의 3분절로 구성된 것이 특색임을 언급하고 싶다. 3분절의 구성이란 발단부가 1598년 청 태조 누르하치의 후금 개국에서 병자호란 발발까지 47년간이며 전개부분은 병자호란 48일간의 전쟁, 결말부는 1639년 12월 청 태종의 삼전도 승전비 세우기까지 3년을 말한다. 또 척화신에겐 ‘尹公, 吳公’하고 주화파에겐 ‘최명길, 명길이’ 따위로 부른 점에서 작자는 척화파를 존경하던 남성 필자<sup>26)</sup>이리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① 적이 남성(南城)을 침범하고 중일토록 행궁을 향하여 방포(放砲)하니 첩환이 사발갈고 삼층 기와집을 뚫어 한 자가 넘게 들어갔다.

— 『산성일기』, p.67

②적은 그러하고 우리나라는 싸울 뜻이 없으니 구원은 오지 않고 달리 할 일이 없어 행궁 남쪽에 작소(鵲巢)를 지켰으니 사람마다 이를 바라보고 길조라 하여 그만 믿었다.

— 『산성일기』, p.34

③ 정축년 초하루 …… 광주(廣州) 목사 허위(許徽)가 권모(골무떡) 한 그릇을 진어(進御)하고 백관들에게 두어 가래씩 보내었다.

— 『산성일기』, p.34

25) 이우경, 위의 책, p.60.

26) 아우경, 위의 책, p.60.

에서 보듯 작자는 임금의 최측근에서 수난을 함께 겪었던 관리였던 것 같다. 『산성일기』의 이본으로는 낙선재본(150면, 75장 궁체)이외, 국립중앙도서관본(119면, 60장 해서체), 구왕궁본(해서체)이 있으나 내용상 차이는 없다.<sup>27)</sup> 문체 역시 표기는 한글이나 한문 문어체였다 서사 전달 양식도 대화의 경우 인물의 개성적 성격을 묘사한다기보다 그 인물의 관련 사건 설명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sup>28)</sup> 언어행위가 있었음을 환기시켜 주는 ‘가로되, 이르기를, 말하기를’ 따위 선행 불구동사가 많아 발화의 리얼리티가 덜하다. 이는 사대부의 덕목인 내면정서 표출 억제와 더불어 문학성보다 사료편집을 지향하는 작가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적 역사에 대한 기록에 충실하려다 보니 날씨도 일상날씨가 아닌 천재지변 중심으로 기록되고 상소문, 국서 인용이 많다.

이같은 공적 일기의 성격은 조경남의 『속잡록』에 더욱 노골적이다. 『산성일기』가 지리적 공간을 남한산성에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속잡록』은 전국을 무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전쟁을 겪는 백성들의 삶이 다각도로 관찰되어 서술내용이 풍부하다. 날씨 또한 『산성일기』에서처럼 일괴(日怪)가 기록되었을 뿐, 그날그날의 날씨가 아니다. 예를들면 병자년 “평안도에선 대동강 오리떼가 작은 오리 수십 진이 좌우로 갈라서 10여 일 싸웠다(3월 8일), 구름이 길게 뻗히고 밤에 달무리와 무지개가 달을 껴었다(3월 11일)”와 같은 물괴(物怪), 일괴(日怪)로 전란을 예감케 하고 김유의 “대체 달이란 음의 정(精)이요 무지개란 음의 유(類)라 나쁜 음기가 음양의 정을 침범한 것”이란 해석도 인용하고 있다.<sup>29)</sup> 이런 역사 기술방식을 H. 화이트식으로 말하면 은유적 양식의 메타역사로서 『산성일기』나 『속잡록』의 사료편집 지향이 그 증거이다.<sup>30)</sup> 작자의 『난중잡록』에

27) 김광순, 앞의 책, p.90~99.

28) 박종철 외, 「개화기 소설의 언어와 문체」, 『개화기 문학론』(형설출판사, 1985), p.268.

29) 조경남, 「대동야승」 『속잡록』(민족문화추진회, 1971), p.389~390.

30) H. 화이트는 연술양식에 의한 역사 해석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환유, 은유, 제

이은 『속잡록』은 당대의 정치, 문화, 사회, 당쟁, 외교 등의 연구자료로서의 조선 중기의 전란사료답게 전국 방방곡곡의 역사적 현장을 보여주려 고자 했지만 정치적 갈등에 대한 장황한 상소문, 국서 인용, 문어체적 정형성 등이 피상적, 관념적 표현으로 나타나 일기의 문학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텍스트의 수사학적 목적이 교훈, 설득, 오락 …… 등이라면 『산성일기』나 『속잡록』은 교훈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병자호란이 생트집으로 이웃나라를 침략한 청나라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적극 대처하지 못한 임금과 정치권에도 있다는 현실인식으로 나타난다.

① 변신(邊臣)이 장계를 올린 지도 이미 수일이 경과하였는데 성상(聖上)으로부터 전석(前席)의 불음이 있으셨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묘당(廟堂)에서는 음우(陰雨)의 계책이 없으니 ……

— 『속잡록』, p.385

② 삼공육경(三公六卿)이 도적과 더불어 결혼하려고 하니 청 태종은 “멀리 오려면 폐단이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한다.

— 『산성일기』, p.84

위 ①은 작자가 의정부의 상소문을 빌어 전란을 초래한 임금과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며 ②는 전후, 대신들이 청나라로 자식을 결혼시키려는 세태를 꼬집고 있다. 그 밖에도 인조가 남한산성에 포위되자 8도에 구원병을 청하는 교서를 통해, 청나라의 침략이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명나라와의 군신관계를 지키려다 당한 것인 만큼 백성들도 군신의 대의로써 국왕을 도우라고 촉구<sup>31)</sup>한 것을 보면 최고 통치권자의

유, 아이러니이다. 그 중 은유는 사물의 특수성과 개성의 이해와 묘사로 지식을 동일시 하는 설명으로 로망스의 플롯에 해당하며 사료 편집을 예로 들었다.

Hayden White. op. cit).

31) 『속잡록』, p.409.

궁색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곧잘 역사의 교훈 운운하는 건 아무리 당대의 논리가 그럴 듯해 보여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진실은 드러나 게 마련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산성일기』와 『속잡록』이 전쟁의 참상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훈을 목적으로 공적 담론을 지향하지만 일기의 장르적 속성-사실도 허구도 아닌 작자의 주관적 산문-때문에 두 작품은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를 도식화한 것이다.

<도식 1>

	『산성일기』	『속잡록』
1. 척화파에 대한 입장	옹호,동조 (삼학사 호칭 '公' 다른 사람은 '최명길, 명길')	중립적 (삼학사와 다른 사람 같이 호칭 '홍익한, 오달제, 최명길' 등)
2. 능봉군과 심 집 관련기사	청나라에서 화친조건으로 왕자와 대신을 볼모로 보내라고 하자 조정에서 왕제 능봉군과 판서가 아닌 심집을 대신으로 가장해서 보냈는데 심집이 능봉군은 왕자가 아니며 자신도 대신이 아니라고 실토 (『산성일기』, p.24)	심집이 왕자가 지금 상중(인조와 왕비 한씨 죽음)이라 먼 길을 떠날 수 없다고 순한 말로 적을 타일렀다고 기록 (『속잡록』, p.406)
3. 청 태종의 승전비	청 태종의 명령으로 대체학 이경석이 비문을 짓고 참판 오준이 글씨를 쓰고 참판 여이정이 비석에 새김. 비문소개 (『산성일기』, p.85~86)	청 태종이 비문은 청나라에서 써서 보내겠다고 함 (『속잡록』, p.503) 비문내용은 생략
4. 인조 호칭	인조는 청 태종에 대해 스스로를 '소방(小邦, 신(臣)')으로 일컬음. (『산성일기』, p.57)	'이(風) 등의 서캐같은 소신(小臣), 소방(小邦), 당직(當職)' 따위로 인조 자신을 지칭. (『속잡록』, p.516)

그리하여 개인일기인데도 『속잡록』이 호란 당시 전국 곳곳에서 일어

나는 일들을 세밀히 관찰 보고함으로써 거의 사서에 가깝다면 『산성일기』는 중요 사건을 간결하고 극적으로 기술해서 단숨에 읽히는 맛이 있고 무엇보다도 한글 궁체의 멋스러움은 작품의 내용 못지 않게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이런 글씨체는 전쟁중의 경황없는 어수선했던 속에서 썼다기보다 전쟁 후 시간을 두고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남성일기들이 일찍부터 공개된 것에 비하면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는 뒤늦게 발굴되어(충남 『향토연구』 5집, 1989) 후학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 점이다. 역사를 보는 입장에 따라 왕조사관, 식민사관, 민중사관 등이 있을 수 있다면 여성이 본 역사도 있을 법한데 유교 가부장사회는 여성의 존재가 종속적이었던 탓으로 비록 상류층 여성이라 해도 역사와 같은 공적 담론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E. 톰슨이 19세기 성(gender)과 영국 노동자 계급을 논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차이가 강조되었고 제도적으로는 빈번하게 분리되었다.”<sup>32)</sup>고 한 말은 남평曹氏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즉 그녀가 남편의 부재중 그 많은 노복을 거느리고 떠난지를 전전하며 전국에 걸친 농지를 경영<sup>33)</sup>하고 방문객을 접대하는 여가장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대행자로서이지 여성의 주체적 삶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히 ‘남성의 그림자’, 아니마 여성일 뿐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젠더공간의 확대를 가져와 남평曹氏로 하여금 역사의 현장에 나서도록 했고 거기서 그녀는 전란을 겪는 백성들의 고통,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꼈다.

초삼도음추향대제종묘제후의나오시다운각시오다비오개녕감병등후시다코남

32) Harvey J. Kaye & Keith Maccland, E·P. Thompson Critical Perspectives (Polity Press, 1990), p.99.

33) 남이웅의 토지소유는 향해도, 평안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걸쳐 있었던 것 같고 이는 당시 양반들의 관습이기도 했다. 또 그 농지 관리는 집안 중, 외방중, 소작인 등이 했다.



참의괴별호여겨시니즉시가겨서저물게야오시다가문얼우신내더러호시니그이업시  
 놀랍다두림이지성부가셔호유무보니그스이도반갑기만만타가는길히점점아독호니  
 어엿블샤부모두고어린즈식두고어디라가는고이런시절이네도잇던가

— 『丙子日記』, p.446

위 인용문은 1640년 7월 3일 일기인데 예조 판서인 남편이 추향대제를 종묘에서 지내고 귀가했다가 사촌형 남이공(배오개영감)의 문병을 갔다는 것이며 첩실 아들 두림이가 심양인질로 가는 도중 개성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부모도 두고 어린 자식도 두고 어디라고 가는가? 이런 시절이 옛날에도 있었던가?>라고 탄식하고 있다. 병자호란이 발발한 지 5년째, 남편은 돌아왔지만 대신들의 자제를 심양에 억류하는 것은 계속되는 <이런 시절>이 옛날에도 있었느냐는 것이 작자의 역사의식이 아니고 무엇이라.

역사의 총체성이 자질구래한 삶의 일상성을 포함한 삶의 모든 단면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범위에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총체성일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그런 점에서 『丙子日記』는 그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요컨대 『丙子日記』는 여성이 본 역사적 담론이다. 제목이 병자호란을 상기시키는 것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정치인의 교제 방식, 관리의 업무 영역, 도목정사(都目政事: 관리들의 근무 평가) 외교 사절들의 내왕, 사대부집 여성의 일상에 대한 기록의 엄밀함이 이 작품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丙子日記』는 작자의 문학적 재능에 힘입어 일기문학으로서도 성공한 작품이다. 다음은 여성 서사체로서 『丙子日記』의 여성적 문학성을 검토한 것이다.

### 3. 여성 서사체로서의 『丙子日記』

『丙子日記』는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춘성부원군 市北 南以雄의 부인 南平 曹氏가 병자호란을 만나 63세의 나이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쓰기 시작한 한글 필사본 일기로서 작자와 연대가 확실한 최초의 여성일기이다. 1636년 12월(인조 14년)부터 1640년 8월(인조 18년)까지 4년여 동안의 전쟁 체험기인 이 작품은 표기나 문체상으로도 한문투가 아닌 한글 구어체인 점에서 17세기 국어를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뿐 아니라 문장 표현 감각 또한 수필 문학의 예술성을 느끼게 해 준다.

역적의 일기도 아니고 무덤 속에 보관된 것도 아닌 이런 작품이 私家의 가보로 전해오다 350여 년만에 공개된 것을 볼 때 남성일기라면 그렇게 치지도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계축일기』가 있다 하나 이는 작자 미상의 어느 궁녀가 쓴 것이고 또 정치적 사건의 어떤 한쪽 입장 표명이고 보면 『丙子日記』야말로 본격적 여성일기라고 할 만하다.

#### 1) 기록하는 여성

『丙子日記』는 우선 남평曹氏의 꼼꼼한 기록의 산물이다. 작자는 전란 중에도 병으로 앓아 누운 때를 제외하곤 기록하지 않은 날이 없고 남편이 심양에서 귀환한 후에는 손님 접대로 분주해서 기록 못한 날이 며칠 있을 뿐 그날그날을 빠짐없이 적고 있다. 기록 못하면 못한다고 기록하고 특별히 적을 내용이 없을 때는 하다 못해 날씨만이라도 적었다. 날씨도 『산성일기』 『속잡록』 등이 천재지변이나 일과, 물과 중심으로 적는데 비해 『丙子日記』에선 그냥 하루하루의 기상상태를 적은 것이다. 그것도 몇 시에 우박, 아침엔 흐렸다가 밤중에 비가 왔다는 식으로 자세하다. 이는 『丙子日記』의 작자가 영농가로서 농사에 중요한 날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있을 것이다. 『丙子日記』를 보면 농사일을 챙기는

것은 남평曹氏의 몫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남편 南以雄은 집에 있을 때도 농사에 관여한 것 같지 않다. 흔히 양반집 안방마님이라면 열두 폭 스란치마를 끌며 처첩의 갈등에 고민하는 비생산적 인물로 상상하기 쉽지만 남평曹氏는 봉제사 접빈객에 가사 지휘와 농사 감독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 병풍을 만들고 조각보를 깎는 등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는 부지런한 여성임을 보여준다. 그 부지런함이 『丙子日記』와 같은 일기도 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부지런하다고 누구나 글을 쓰는 건 아닐 게다. 여기엔 작자의 역사의식 곧 개인이든 국가이든 역사의 격변기에 겪어야 했을 고통에 대한 사색과 일찍 자식을 여윈 개인적 상처가 기록하지 않고서는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① 요스이게잇다하는진혀여가고산성괴별은아독하니이때애근논저기라망극망극하고정신은간디업스니엇디 다기록하리심각족족덕노라

— 『丙子日記』, p.46<sup>34)</sup>

② 대설이스이의논도불일코형츠를아므드러덩티물혀여난추로여러날알하니목다심신이어독하니다기록하라

— 『丙子日記』, p.50

③ 다기록물혀여심각족족쇼일하노라

— 『丙子日記』, p.54

④ 판관덕<sup>35)</sup>히산하시다이때도동의서망극망극혀여애근논적이라다기록하라

— 『丙子日記』, p.54

위 인용문 ①은 피난차 잠시 당진 읍내 호장 박상의 집에서 지내는데

34) 남평曹氏, 전형태·박경신 역주, 『丙子日記』(예전사, 1991). 앞으로 인용하는 부분은 이 텍스트에 의한다.

35) 남평曹氏의 조카며느리이자 친정쪽 집안인 조명옥의 차녀로 남두춘의 아내. 판관은 남이웅의 생가쪽 손아래 동생 남이걸의 차남으로 남이걸의 사촌인 남이풍의 양자가 된 남두춘이며 판관벼슬은 종 5품.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남한산성에 있는 남편으로부터는 소식도 없으니 애타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음, ②는 다음 피난지에 관한 의논이 통일되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종인 난추도 아파 막막함, ③은 피난지 소허섬으로 가던 중 바람과 눈 때문에 무인도인 죽도에 닿아 쌀 씻을 물도 없고 물 떠 먹을 그릇도 없어 고초를 당하니 일일이 기록하지 못해 생각나는 것만 대강 적음, ④는 판관택(조카며느리인 남두춘의 아내)이 아이를 낳았지만 섬 가운데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으니 해산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움 등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곤란한 지경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나 이를 기록하는 것으로 한맺힌 자신의 삶을 치유코자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기록 자체에 대한 작자의 애착은 가계부로 이용되기도 한다. 『丙子日記』는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쓰는 가계부의 원조이다. 아울러 영농일지이다. 경조사, 생일다례, 제사상차림, 주고 받은 선물 내역, 방문객과 그들이 마신 술잔수, 종들의 역할분담과 휴가, 농사 일정, 일꾼 수, 씨앗의 양, 수확량, 소작료 등등 자질구레한 일상의 나열에서 사대부가의 살림 규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① 십스 청통이금산가녀러오니오라바님유무보오니반갑습기만만흐습다빅미 단말포단말적두두말진임흔말쑤두되빅지두권고리키각흐나누룩혼동건티돌보내여겨시다

— 『丙子日記』, p.70<sup>36)</sup>

② 념삼 종일음툭이일봉이청풍가두바리며조십팔두פות열닐급말당니바도פות 말서미며조미슈의פות두말가져오다

— 『丙子日記』, p.200

36) 이 내용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4일(1637년 4월 14일), 맑음, 충(종의 이름)이가 금산(錦山)에 갔다가 다녀왔다. 오라바님의 편지를 보게 되니 반가움이 가득하다. 백미(白米) 다섯말, 메조 다섯말, 팔 두말, 참깨 한 말, 꿀 두되, 백지(白紙) 두권, 고리와 키 각각 하나, 누룩 한 묶음, 말린 꿩고기 두 마리를 보내셨다.

③ 십구 음새배드러가겨서저물게야나오시다출천풍돌오니이벽여근오던딛갓  
가스로삼십여근이오니무어스로분호고무어솔쁘리

— 『丙子日記』, p.378

위 ①은 하인 충이 금산 친정오라버니택에 갔다가 편지와 선물을 받은 것이고, ②는 1638년 3월 23일의 일기로 축이와 일봉이란 종이 청풍(淸風)에 가서 소작료와 장리 받은 곡식과 그곳 외방종<sup>37)</sup> 섬이에게선 메조를 못받은 대신 팔 두 말을 받아왔다는 것이며 ③은 춘천사는 외방종들이 흉작으로 소작료를 평년 200여 근 가져오다 30여 근(목화숨인 듯)밖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걱정스럽다는 하소연이다. 또 ②로 보아 사대부집이라도 장리(長利) 따위 이자놀이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대가집이나 서민이나 예나 지금이나 가계를 꾸려가야 하는 주부의 고충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안빈낙도를 가치관으로 하는 유교사회에서 이런 발언은 작자의 솔직한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37) 외방종이란 집밖에서 부리는 노비를 가리킨다. 집안종이 가정내의 온갖 잡일과 주인이 직영하는 농지의 일꾼 노릇을 하는 노비라면 외방종은 주인의 토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여 이를 관리하는 종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아 노비들이 이를 대신했는데 노비들은 가사노동과 농사 외에도 주인의 사교에 필요한 각종 선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상업활동에 종사하기도 했다. 17세기 조선시대엔 화폐경제와 증답경제(贈答經濟)가 공존했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았던 까닭에 선물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다. 또 토지수확 증쌀과 면포가 화폐역활을 했다. 이 때 가격이 싼 곳에서 구입한 것을 비싼 곳에 되파는 판매행위인 번동(‘反同’의 속어)을 통해 노비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도 하고 외방종의 경우 주인의 종자 곡식을 제 눈에 파종하는 사례도 있어 주인양반들이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비들이 사회적 지위는 비참하고 인격적으로 부자유스러웠지만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것을 매매, 상속할 수도 있어 노비신분이면서도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많았다.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종관계였을 뿐 실상 긴장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 노영구 역, 『양반』(강, 1996), p.154~167. 그러나 『병자일기』에선 남평 曹氏의 인간적 교류로 계급 갈등이 없었다. 또 다른 예로 단원 김홍도의 『타작도』를 들 수 있다. 추수하는 일꾼들과 이를 감독하는 마름(혹은 주인)을 그린 이 그림에서 일꾼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이밖에도 『丙子日記』의 기록성은 임금의 병환과 왕자 탄생,<sup>38)</sup> 관리들의 업무와 방문객에 관한 기사가 많아 당대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작자는 대사헌이자 내의원 제조를 겸하고 있던 남편이 새벽마다 대궐로 출근하자 “대궐에 새벽 문안 가셨다.”를 수십 번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 이러기를 석 달째 나라(임금) 근심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새벽 나들이로 건강을 상할까 염려하는 작자의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썼다.

십륙 청인하여궐하이가겨서이날게서주므신다 …… 나라근심이망극히다석돌  
재새배나드리로히시니저운이을히시라집이고요히고대쇼근심리아미라타업서월야  
의저문사름돌드리고안자므옴도휘회하고 …… 오늘은상휘잠간히리신듯히여창경  
궁으로도이여오시에히시다쇼안돌을배왕즈나히시다한다 …… 초혼영감나오  
시니옥휘열이느리신듯히시다코데츠히돌이물러가라히시미각지비와자시다

— 『丙子日記』, p.376

윗글은 <간밤 임금의 환후로 남편이 대궐에서 밤을 새운다기에 걱정  
이 되어 달밤에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잤아 있으니 적막하기 이를 데 없  
었다. 오늘(1639년 10월 16일)은 임금(상후)이 좀 나은 듯해서 오시에 창  
경궁으로 이어하셨고 후궁 조소원은 새벽닭이 울 때쯤 왕자를 낳았다고  
했다. 초저녁에 영감이 집으로 왔는데 임금(옥후)의 열이 내린 듯하다며  
여러 대신들은 물러가라고 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자게 되었다>는 내용  
이다. 이쯤 되면 공적일기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예를 몇 개 더 들어  
보자.

① 이틀 청어제경소의관윤히셔오늘샤은히시다한성부포휼히시다허승지와휼  
히여가시다취연도다엿잔

— 『丙子日記』, p.392<sup>39)</sup>

38) 『丙子日記』, p.370.

39) 『丙子日記』엔 날짜 표시가 다양하게 쓰였다.

② 십구 청오날은문안아니하시다조감찰형대신감역김스과다진지오날도목정스  
— 『丙子日記』, p.394

위 ①은 1639년 12월12일 남편이 한성판윤에 임명되어 한성부 산하 관리에 대한 상벌이 있었고 허승지는 취해서 돌아갔으며 최연도는 여섯 잔을 마셨다는 기록이다. ②는 같은 해 12월 19일엔 남편이 대궐 문 안 안 갔고 감찰(監察) 벼슬에 있는 조씨 형제, 감역(監役) 벼슬의 신씨, 사과(司果) 벼슬의 김씨와 술을 마셨으며 정부에서는 관리의 근무 고과 평가가 있었다는 기록이다. 아울러 방문객의 면면 소개로 남편 남이옹의 정치 계파를 짐작케 한다. 방문객들은 사랑방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이곳을 장외정치의 공간으로 활용한 것 같다. 사랑방은 축소된 공적 영역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술 또한 정치인의 교제에 필수품이었던지, 『丙子日記』엔 술 얘기가 자주 나온다. 작자의 남편은 술 때문에 곽란에 시달리면서도 바깥에서 마시고 들어오기 일쑤이고 집에 온 손님과도 마셔 그 시대 사대부들은 술만 마신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丙子日記』의 내용을 남녀욕망의 해소란 차원에서 보자면 안채/사랑채의 공간 분할로 꿈꾸는 여성/술마시는 남성으로 젠더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 필자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성공간인 사랑채에서 손님들이 마신 주량을 여성공간인 안채의 작자가 <누구 몇 잔……> 하는 식으로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점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일이 다 기억해서 적은 걸 보면 대단한 기록벽(記錄癖)이 아닐 수 없다.

## 2) 꿈꾸는 여성

『丙子日記』는 꿈의 문학이다. 작자 남평曹氏는 참으로 많은 꿈을 꾸다. 이 꿈은 『금오신화』나 『구운몽』에서 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서의 꿈이 아닌 수면중의 꿈이다. 프로이트는 이런 꿈을 무의식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상인들의 생리학적인 환상이라고 하였다.<sup>40)</sup> 그는 고대인

들이 꿈을 미래 예언적 기능으로 본 것을 반대하고 전의식(前意識)인 낮의 잔존물이 잠 속에 영상으로 나타난 기억의 재현인 동시에,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충족<sup>41)</sup> 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다는 것은 낮의 잔존물 위에 역시 무의식에 속해 있던 다른 무엇, 곧 강력하기는 하지만 억압되어 있는 소망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42)</sup> 남평曹氏의 경우 남편이 심양에 억류돼 있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꿈을 꾸고 귀환한 뒤에는 거의 꾸지 않는다. 이는 작자가 자식의 죽음이란 참척의 고통과 부모, 형제의 죽음과 같은 가족 상실(family loss)을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이 가족 이별의 콤플렉스가 무의식에 축적되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63세라면 인생의 연륜도 깊고 유교적 교양도 갖춘 작자가 그토록 많은 꿈을 꾸며 남편과의 재회에 집착하는 모습을 단순한 부부애로 볼 수만은 없다. 그것은 작자가 4남 1녀나 낳았지만 모두 일찍 죽어 그 정신적 상처가 고스란히 무의식에 남아 한이 된 터에 몸은 늙고 남편마저 만리타국에 인질로 가 있으니 외로움과 불안은 거의 강박적임을 말해준다. 그래서인지 『丙子日記』의 작자가 꿈에서 남편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은 <마음 든든하다>가 대부분이다.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꾸리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여성인 그녀에겐 남편이 유일한 의지처였던 것이다. 남편과의 재회는 작자의 한풀이 방식이 될 터이다. 사별 못지 않게 생이별이 한이 됨을 그녀의 다음과 같은 일기에서 확인하게 된다. “…… 년허여꿈마다녕감을보오니반갑습고는는흠습다어는날흔터모다흠듬의사힌거시저그나프러딜고”(『丙子日記』, p.134) <흠중에 쌓인 것>이 바로 한이 아닌가. 이 한은 남편이 무사히 귀환해야 해결될 것이다. 프로이트의 말대로 꿈이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충족이라 해도 꿈만 꾸면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꿈의 행운아이다.

40) E. 리이트, 권택영 역, 『정신분석비평』(문예출판사, 1989), p.40.

41) S. 프로이트, 이확 역, 『프로이트심리학 연구』(청목서적, 1987), p.197.

42) S. 프로이트, 김성태 역, 『정신분석 입문』(삼성출판사, 1982), p.218.



꿈에 보이는 님이 신의 없다 하건마는  
 탐탐이 그리울 제 꿈 아니면 어이보리  
 저 님아 꿈이라 말고 자주자주 보시오.

화성 명기 명옥(明玉)의 시조이다. 이를 산문화한 것이 남평曹氏의 꿈 꾸기이다. 그녀는 몸이 아파서 잠자지 못하면 꿈을 꿀 수 없고 꿈을 꾸지 못하면 영감을 볼 수 없다는 식이다. 또한 꿈은 영감과 공간적 격절을 해소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십칠 풍설종일꿈마다말리밧거가거신이롤보오니진실로수만흔피롤ㄹ리오디문  
 험미로다

— 『丙子日記』, p.142

위 인용문은 1637년 11월 17일 일기인데 작자는 <꿈마다 만리 밖에 가 계신 분을 뵈오니 진실로 수많은 산을 가리지 못함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만난 꿈에서 작자는 남편과 이별하기 전 주고 받은 거울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희학(戲謔)하는 농담도 주고 받는 등 일상적 질서로서의 원상복귀가 이루어진다. 이럴 때 작자에게 꿈이 일상이고 현실이 비일상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소망 충족은 꿈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꿈은 시간적 거리도 무화시킴으로써 죽은 이와 의사소통의 현장이 된다. 죽은 부모나 자식, 며느리들의 생일, 제사 무렵이면 작자는 어김없이 이들의 꿈을 꾸며 꿈속에서 그들을 만나고 있다. 작자는 이들을 만나면 남편의 귀환을 돕기 위한 예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그리움에 대한 사령들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꿈의 소재와 꿈의 작업을 혼동하지 말라<sup>43)</sup>고 했지만 작자는 전통사회 한국인들이 그랬듯 꿈

43) 위의 책, p.216~221.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꿈의 소재와 꿈을 작업을 혼동한다고 말하면서 꿈의 소재는 꿈의 작업이 변형시켜 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꿈의 작업을 수행

을 미래 예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丙子日記』에서 ‘몽조, 길상조(吉祥兆), 좋은 징조’라든가 꿈을 점(占)으로까지 표현한 것이 그런 인식의 본보기이다. 거듭되는 남편과의 꿈 속 만남에 대해 작자의 해몽, 곧 꿈의 해석은 꿈이 미래를 예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꿈 작업의 압축에 다름 아니다. 동일한 꿈의 반복이 프로이트식으로 말해 압축이며 작자가 꿈을 수십 번 꾸는 것은 무슨 징조라기보다 그녀 자신의 소망일 뿐이다. 요컨대 남편曹氏가 꿈에서 ‘영감을 만나다’는 남편의 귀환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재회를 바라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丙子日記』에서 죽은 자식이나 며느리들, 부모의 꿈에 비해 남편에 관한 꿈이 훨씬 횡수가 많은 것을 보아도 작자 스스로의 생각처럼 꿈이 어떤 예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귀국을 바라는 욕망의 표현임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남편이 귀국한 뒤에는 별로 꿈을 꾸지 않는 것이다. 작자가 <신선, 선약, 노몽>과 같은 도교적 꿈은 길몽이라며 좋아하면서도 가끔 꾸었던 흉몽에 대해서 <잡몽>으로 간주, 기록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도 꿈의 예시기능을 믿었던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꿈에서조차 불길한 미래는 피해 가고 싶은 안쓰러운 여인, 그가 남편曹氏이다.

### 3) 여성적 정감의 수사

『丙子日記』의 작자는 한 많은 여성이다. 스스로도 <인간사 속절없는 한뿐이다.>라고 썼듯이 그녀의 한은 시대적/개인적 상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시대적 상처란 병자호란이 무엇보다 큰 원인일 테고 개인적 상처로는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이요, 부모, 자식이 모두 죽고 남편과는 생이별한 데다 건강마저 <병든 짐승에 파리 끓듯> 두통, 치통, 안질, 불면, 치질 따위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이같은 한을 표출하는 전통 사회 여성의 디스코스란 예외없이 꾸밈이고 뉘뉘리에 하소연의 언술이

---

하는 방법은 압축, 대치, 재현, 2차적 수정이 있다.

었다. 그것은 남성의 타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삭제의 기호로서 여성이 겪는 신세한탄이다 보니 언어의 정서적 기능이 우세한데 ‘한 말을 또 하는’ 동어반복적 진술방식도 그 한 예이다.

이런 식원코 깃브기를 엇다다니르리로혀므옴이어런듯췌흔듯흐니꿈을 생  
각하고그지그지업서흐나동던(東殿:세자)곳뫼와나오시면더욱더욱죽홀손가

— 『丙子日記』, p.188

위 예문은 1638년 2월 27일의 일기로 작자가 천지신명께 축원 드린 후 옷을 입은 채 졸다가 시어머니와 남편꿈을 꾸었는데 마침 영감이 귀국한다는 기별을 받고 기쁨에 겨워하며 이왕이면 동궁마마를 모시고 나 오길 바라는 내용이다. 인용문 중 <그지그지없어>라든지 <더욱더욱>같은 첩어의 사용도 『丙子日記』에 많이 나탄나는 반복진술의 하나이다. 이러한 동어반복이 『丙子日記』엔 단어나 구절의 반복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윤선도 가문의 며느리인 이씨 부인이 쓴 『규한록』과 같은 여성서사체에에선 ‘이미 한 얘기를 또 하는’ 동일한 에피소드가 느닷없이 서사진행에 끼어들어 텍스트의 논리적 질서를 흐트러 놓기도 한다. 그 때문에 전통 사회 여성의 글쓰기가 비논리적이란 평가가 있었던 것이다. 『丙子日記』를 비롯한 내간체 작품들이 남성비평가의 외면을 당한 데에는 당대의 공식언어인 한자로 표기되지 않았던 탃도 있지만 내간체란 여자들이 쓴 쉬운 글이란 함의 속에 하소연, 반복 진술같은 여성 글쓰기의 특징을 그들이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혜란 교수는 여성 작가가 유교적 규범에 적응하기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억압했다가 무의식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44)</sup> 남평曹氏에게서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감정의 자체가 일기의 품격을 유지하게 해 준다.

44) 조혜란 「고전여성 산문의 서술방식」, 이해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태학사, 1999), pp.407~415.

초이초삼 청별좌의제물디내니내의설우미야?이업스니엇다나리제헤리도  
업서남진스과조창하참져호고신쥬를보거든톡톡아득호니세월이라가나어의시어너  
날의니줄고어엇브던얼구리상상하여그리운곳싱각호면간담이즈기는듯버히는듯아  
이고뚝의나뵈여라경계호고타루하여디내나흔번몽미예도분명이뵈디아니호니그리  
타젠돌정녕이이시면노모롤아니싱각호라마는유명이다론디라그런가더욱설위호  
노라볼셔오년이장초진하여가니호르논세월이누를위하여머물고

— 『丙子日記』, p.122

위에 인용한 것은 1637년 10월 2, 3일 이틀치 일기이다. 별좌벼슬을 지낸 아들의 제사를 지내고 <죽은 지 5년이 되어가도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아들은 꿈에도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서럽다.> 25세에 죽은 장년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간담이 쪼개지는 듯 베어지는 듯> 말문이 막힌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이 누구를 위해 머물겠는가> 하고 자연의 섭리에 체념하고자 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십이일 청은꿈의사곡모님보옵고업스신동성님내다보오니반갑습니다여러히로  
더꿈의도분명이문보아디니창골머느리보니얼구리완연호고성덕하여알피안자시니  
앗갑고어엇블사내즈식돌설울사아이고어드러곰가서형영도업서디건고본디무즈식  
흔사름이야이대도록설울손가몽똥도반갑고다시반갑고슬픈정미?이업스니상시?  
티뵈니씨매호뜻거우니엇디늘로나논이리사라서가지만흔시절조차보는고아이고홀  
썩이로다 ……

— 『丙子日記』 p.138

윗글은 11월 12일 쓴 것인데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죽은 동생과 창골 머느리를 보니 특히 머느리는 곱게 단장한 얼굴이 완연해서 아까운 나이가 불쌍하기만 하다. 꿈에서나마 만나서 반갑고 반갑지만 슬픔이 그지없어 그저 <아이고>할 뿐이라고 고백한다. 일기를 쓸 당시 작자의 나이가 예순 셋이니 부모가 살아계시길 바랄 수는 없지만 4남 1녀와 머느리들까지 죽고 없는 처지이고 보면 단장의 아픔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러니 <시절이 이러하다고 하나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내 몸이 이다지 외롭고 서러우라>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거기다 남편은 늙은 몸으로 낮은 땅에 끌려가 있으니 염려가 이만저만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어 사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남평曹氏를 보면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이렇게 많은 가족상실과 이산의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싶다. 작자는 이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인 양 죄업망상에 빠지기도 하다가 이리 저리 생각해 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丙子日記』가 상처의 진술이되, 그나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체념의 승화라고 할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남평曹氏의 비극이 예사롭진 않지만 상처입기 쉬운 사람은 그만큼 인간적이고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이기에 『丙子日記』는 또 정감적 수사가 풍부하다.

① 회일 청극한이니남방치위도이러커든더다히는엇더호고아마일의다드라도  
아니성각호을이리업다

— 『丙子日記』, p.146

② 념오 청쑤의녕감보옵고별좌도먼더섯거늘어럼프시잠간보이니리히여닐온  
마리진실로몽미로다찌여호못겹고설운정이무호호여울며닐온마리다시뵈고말이나  
하라니론돌다시즘을일우디문호고미양촌당을슬우니어너물로뵈고

— 『丙子日記』, p.158

③ 념철……

길히점점멀고ㄹ거거시문뵈게되니이러호여공명도서서여힐제나모수플뵈라호  
닷다그일이이성각호여몬보게되니마상의셔타루호고ㄹ이업스니엇더타거록호리……

— 『丙子日記』, p.172

④ 념팔 청쑤의샤직도념보오니턴게아히적얼굴로보니찌여호못겹고낫브기ㄹ  
이업스니엇디호족작도업시뵈발을비사며슬프고설위호며……

집안희열나쁜저희중옹이삿기쳐는양을보니삿기도놀며야는며드내여머기는  
일을보니인간스롭은며즘침을불워하거니엇디아니슬프며설우리……

— 『丙子日記』, p.218

위 ①은 1637년 11월 29일 일기인데 날씨가 몹시 추워 작자가 있는 곳인 남방이 이렇게 추운데 남편이 인질로 가 있는 청나라는 북방이니 얼마나 추울까 염려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무슨 일을 당하여도 생각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다. ②는 1637년 12월 25일 쓴 것으로 꿈에 남편과 죽은 아들을 보고 잠이 깨어 아들더러 <다시 보이고 말이나 해 보아라.>하고 울며 말했지만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가슴을 태우며 <이것(불길)을 어느 물로 끌 것인가> 묻고 있다. 그리고 ③은 1638년 1월 27일 일기로서 친정 형제라곤 여동생(주서댁)이 있을 뿐인데 그 동안 함께 피난살이 하다 이별하게 된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길이 점점 멀어지고 그 멀어지는 모습은 중간에 가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니> 이리므로 <공명(孔明)이 서서(徐庶)를 이별할 때 나무 수풀을 베라고 명령하였다>는 고사가 생각나 말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장면이다. 요즘 같지 않아서 자매가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시집을 가고 나면 영영 이별인 경우이나 다름없었으니 그 슬픔이 오죽했을까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④는 1638년 4월 28일 일기이다. 역시 꿈에 죽은 사직동 시어머니(남이웅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작자에겐 사곡 시어머니와 사직동 시어머니가 있었다)와 아들 천계의 아이적 얼굴을 보고 반갑고 아쉬움에 <나는 어찌 자식 하나도 없이 흰머리카락을 빗는가> 하고 탄식하고 있다. 더우기 집안에 제비 한 쌍이 새끼를 쳐서 그것들을 안아주며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것을 보고 인간이지만 짐승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슬프다고 했다. 날씨만 추워져도 남편이 가 있는 저 북쪽지방은 더 추울 거라는 걱정, 가족 상실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늘 타고 있는 심화(心火)를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다는 비유, 유일한 혈육인 친정 여동생과의 이별이 안타까워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 낙루한다든가, 자식없이 늙어감을 흰머리 빗질로, 애끓는 모성애를 날짐승인 제비 새끼를 빌어 표현하는 등 여성적 섬세한 감성이 돋보인다.

이러한 정감적 수시는 작자의 인간적 솔직성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이를테면 남편이 귀국하는 내용의 유지(諭旨)가 심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작자는 <어린이와 같아서> 조바심을 치고 첩실이 아들을 낳자 예순 여섯 살의 <영감이 우쭐우쭐> 하더라는 말 속에 남편에 대한 알미운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남편의 벼슬이 형조판서(정2품)에서 대사헌(정3품)으로 강등되어도 아들(첩실 자식 남두림)을 질자(質子) 보내지 않아서 좋다고 기뻐한다. 또 청 태종이 중국 정벌에 나서 남편의 귀환이 늦어지자 <호황(胡皇)이 죽어야 하지만>, 남편이 나오려면 호황(胡皇)이 돌아오길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는다. 즉 국익을 위해선 청 태종이 죽어야 하겠지만 그의 허락을 받고 귀환해야 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청 태종의 조속한 귀국을 바라마지 않아야 한다는 이율배반을 작자는 솔직하게 썼던 것이다. 性情의 원리에서 情보다는 性을 강조, 개인의 정감을 억제하고 본성 곧 보편적 이성을 극도로 강제한 유교적 규범미학을 고려해볼 때 『丙子日記』의 이런 요소는 개성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그외에도 『丙子日記』의 개성은 <흐리락 맑으락>같은 신선한 날씨 묘사라든지, 순 우리말로 된 ‘우박=물외, 가래를 따다’와 같은 기상, 농사용어, 비유, 대구 따위 한글 표기 구어체의 언어 감각을 살리고 있는<sup>45)</sup> 데서 찾을 수 있다.

45)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을 들 수 있겠다. “…… 어니약으로고틸고나오시는거별 곳이시면펼연식헌호려니이리혜고더저혜니정신이어림장긋고산이나하늘히나브라 고디내나누운들줄을자며음식이비록있다머글먹음이이시며도 석밥도먹디물호고 고탕증은심호고이롤엇디호리”(『丙子日記』, p.142) 이를 현대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 어느 약으로 이 답답함을 고치랴? 영감께서 나오신다는 기별만 있으면 반드시 시원해지리라. 이리 해아리고 저리 해아리니 정신이 얼음장 같아서 산이나 하늘만 바라보고 지내나 누운들 잠이 오며 음식이 있다 한들 먹을 마음이 있으리요. 아침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창증은 심하여 가니 이 일을 어찌하리.”

#### 4) 젠더 공간의 확대

전쟁은 합법적 폭력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간여도 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느 한순간 날벼락 같은 재난으로 다가온다. 시작을 누가 했건, 이민족과의 전쟁이건, 동족끼리의 내전이건, 전쟁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해서 그 시대적 상처는 집단적 트라우마(trauma)가 된다. 『丙子日記』의 작자도 병자호란이 아니었으면 사대 부집의 안주인으로서 참척의 아픔을 다스리며 예순 셋의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운 노년을 마무리 했을 터였다. 그러나 병자년에 일어난 청나라의 침략전쟁은 그녀로 하여금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많은 식솔들과 병든 노구를 이끌고 여기저기 피난지를 떠돌게 했던 것이다. 평생 안채를 활동 영역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유교 사회 양반집 여성인 그녀가 젠더 공간을 확대하게 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전쟁 덕분이었다.

우선 그녀가 거쳐간 피난지를 텍스트에 나타난 대로 정리해 보자.

##### <도식 2>

함양택 종의 집(1636.12. 날짜 미상) → 경기 화성군 고족리(12.16) → 평택군 진위(12.7) → 평택 중 업동이집(12.18) → 충남 아산군 신창(12.20) → 당진군 장지(12.23) → 서산중 막산이네(1637.1.14) → 홍성병사 농사창고(1.15) → 죽도(1.16) → 서허도(2.18) → 충남 신평(3.11) → 충남 대흥(3.14) → 충남 니빌티(3.15) → 충남 청양(3.16) → 충남 여산중 용틀 막난이네(3.17) → 충주 이안(1638.1.26) → 서울 귀가 (6.2)

위에서 보듯 작자는 모두 열 여덟 군데서 유숙하거나 체류한 셈인데 가장 곤란했던 곳은 죽도였던 것 같다. 작자 일행이 전날(1637.1.16) 충남 당진군 계성(일명 ‘닭жат골’)에 <도적>(오랑캐)이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부랴부랴 소허섬으로 가던 중 눈바람이 몰아쳐 배가 표류, 무인도인 죽도에 닿았던 것이다. 죽도에서의 생활을 보면, <아침밥은 싸



가지고 간 찬밥으로 때우고 종들은 연장도 없이 대나무를 잘라 가까스로 두 칸 집을 지었는데 마치 칼새의 둥지 같았다. 생뎃잎으로 바닥을 깔고 지붕을 이어 세 집 안식구 14명이 그 안에 들어갔으며 종들은 대나무 움막에 의지해야 했다. 물이 없는 무인도라 바닷물에 쌀을 한번 씻어 밥은 해먹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 다른 피난민들은 거룻배로 어딘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나 우리 일행은 물 길는 항아리 같은 것도 없어 한 그릇의 물도 먹지 못했다. 주야로 산성(남한산성)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싶을 뿐이었다>고 썼다. 황망히 피난하다 아들 천남이를 잃었다 찾은 적도 있었다. 이처럼 힘겨운 피난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앞서 말한 당시의 증답경제요, 둘째는 작자의 남편의 공직생활 후광, 셋째는 종들과의 인간적 교류가 그것들이다. 증답경제는 선물 차원이지만 그 규모를 볼 때 가히 생활비를 해결할 수준이고 두번째 이유인 고위공직자인 남편의 후광은 작자도 인정하는 바이다.<sup>46)</sup> 마지막으로 종들과의 인간적 교류는 자칫 계급갈등에 빠지기 쉬운 상전 노비의 관계가 버림받은 종을 거두는 등 작자의 후덕한 인품에서 알 수 있다. 난리통에 집안중 중에도 달아난 종, 슬그머니 뒤쳐진 종들이 많았다는데 『丙子日記』에는 외방종들조차 작자 일행을 극진히 모시고 있다.

초순 청창원이부안슈공도호며가다냥남종들이브린종들을보고다마조나와황거  
시기별을뭇고무스히곰나신이리하눌롯다우리노비등도향깃넙덕분의하나도주그니  
업시다사란노라호고다곰즐겨호더라호고갓던종들이느미집사름은달화쥬보고드라  
나리만코숨으리만호더저희다그러구로고공이나힘뻐호여주더라호니외방종이나향  
거시모디리아니호는다시로다호노라

— 『丙子日記』, p.138

46) 이와 관련, 1637년 7월 16일 일기 중에서 일부를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 저변에 주인 원님께서 백미 네말, 간장 두 말, 청어젓 한 두름을 처음으로 보내셨다. 그래도 어찌 생각하였는가.” 작자의 남편이 고위 관리이므로 지방수령들이 문안을 드리고 선물도 보내는 등 혜택을 주고 있었다.

앞의 글은 1637년 11월 10일 일기인데 집안중 창원이가 소작료 받으  
 러 부안으로 갔다가 그 곳 종들이 상전의 안부를 묻고 무사하다니 하늘  
 같다고 하면서 자기네 노비들도 상전 덕분에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이  
 다 살았노라고 기뻐하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작자는 종을  
 심하게 다루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또 작자는 <그래도 벗지 않고  
 얼고 데지 않았으니 모두 종들 덕>이라고 하면서 <종들 아니었으면 어  
 쨌되었겠느냐>고 종들한테 고마워하기도 한다. 이렇게 작자가 서울을 떠  
 나 피난지를 전전하는 동안 열린 공간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가능해짐으로써 젠더공간은 확장되어간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지리적 이동이 있고 계층적으로도 경반/재지  
 양반의 양반사회 구도 아래, 경반만을 상대하던 남평曹氏가 피난살이로  
 지방양반, 수령, 상민, 소작인, 외방종 등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전란 중 작자의 서울집을 쟁그리 도난 당하기도 하고 남평은 세  
 자를 배행하여 심양에 가 있어 여가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인 데  
 다 작자는 전쟁 고아 문제, 귀신 소동, 왜적 침략 소문 따위 흥흥한 민심  
 을 몸소 겪으며 정치의식에 눈 떠 간다. 그리하여 <망국(亡國)중에 나라  
 가 이렇게 된 일을 부녀자가 알 일이 아니지마는 어찌 통곡하고 또 통곡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무능한 정부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처럼  
 의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에도 불구하고 나라일 같은 것은 <부녀자가 알  
 일이 아니라>고 체념한 채 작자는 유교적 가부장사회에 길들여진 여성,  
 '남성의 그림자 여성'으로 되돌아온다. 이때 체념이란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인의 생활철학인 점에서 고전을 페미니즘적으로 독해하는 데는 세  
 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작자가 친정부도 제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  
 음을 탄식하며 <딸자식같이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고 한다든지 지  
 방으로 시집간 여동생을 영영 이별한다고 슬퍼하는 것 따위는 여성의 정  
 체성을 가부장사회의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녀  
 의 체념은 남성의 억압 외에도 여성 자신에 의한 자기 왜곡, 자기 억압  
 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대 사회가 어느 시대보다

주자학적 이념이 강화된 시기이고 여성들에겐 인종의 미덕 따위를 진리 담론으로 내세우며 '남성이 바라는 여성'을 강요한 결과 여성에게 내면화되어 여성 스스로의 억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봉제사(봉제사라지만 전통사회 여성은 둘러리이다. 왜냐하면 제사를 차리는 것까지만 여성의 몫이지 제례 참여는 남성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sup>47)</sup>), 접빈객, 가사지휘, 농사 감독, 일월성신과 천지신명께 축원하는 자연 종교의 가내 여사제로서 작자의 삶은 남성과 두 바퀴를 이룬 삶이 아니라 '팔루스 사회'의 타자일 뿐 질곡이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티레시아스는 7년간 여성으로 산 경험이 있지만 남녀를 선택하라는 제우스의 물음에 남성권력의 상징인 음경을 택했던 것이리라. 이리하여 『丙子日記』야말로 자신의 예사롭지 않은 개인사와 시대적 상처를 치유하는 남평曹氏의 기술 상관물(descriptive correlative)이었던 셈이고 그것이 역사적·문학적 담론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丙子日記』는 여성적 상처의 연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소연이 없지 않지만 격조있고 간결한 표현으로 내간체의 문학성에 한 몫을 다하고 있다.

#### 4. 맺음말

본고는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통해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담론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이다. 역사의 총체성에다 여성주의사관을 문체 삼는 것은 도전적으로 들릴 만하다. 하지만 P.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공격에 맞서는 것은 도전을 도전으로 만드는 것<sup>48)</sup>이라고 하

47) 조선시대는 종교적으로도 남/여 이원적 대립구조였다. 유교가 공적 종교라면 민간신앙 같은 자연 종교는 비공식 종교로 간주, 전자가 남성영역이라면 후자는 여성영역이었다. 곧 여성은 무당을 대리해 집안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발이' 하는 여사제의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48) Malek Alloula, (trans) Myrna Godzich & Wlad Godzich, *The Colonial Harem*

였듯이 페미니즘 문학연구는 정전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丙子日記』가 남성일기였으면 지금까지 치지도외되었겠는가. 역적의 일기도 아니고 무덤 속에 들어 있던 것도 아닌 작품이 350여 년만에 공개되다니. 63세의 할머니가 꼼꼼히 써 나간 병자호란 당시의 전쟁 체험은 단순한 규방일기가 아니다. 유교적 가부장사회 영향 아래 씌어진 텍스트이긴 해도 『丙子日記』는 당대 남성일기들과 비교해 볼 때 여성서사체로서 독특한 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앞에서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丙子日記』는 작자와 연대가 분명한 최초의 사대부집 여성일기로서 병자호란을 겪은 남평曹氏의 전쟁체험기이다.

② 소위 정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온 내간체 여성작품을 역사의 총체성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구체적 일상성을 획득하고 있는 『丙子日記』는 여성 작가에 의한 역사적 담론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③ 동시대의 병자호란 관련 일기들인 『산성일기』, 『속잡록』과 같은 남성 일기들이 교훈적·설득적인 데 비해 『丙子日記』는 솔직한 내면 고백과 엄밀한 기록성, 간결하고 격조 있는 문장, 한글표기, 구어체의 언어적 미감으로 내간체의 문학적 다양성은 물론 17세기 국어의 자료적 가치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

④ 『丙子日記』는 왕성한 기억력을 지닌 남평曹氏의 기록의 산물이다. 그 내용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국가 대사, 행정 업무에서부터 지인들과 주고 받은 선물 내역, 방문객의 면면, 그들이 마신 술잔수 따위 사적인

---

(Minnesota univ. press, 1986), p.xi.

것에 이르기까지 당대 상류층 양반 사대부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음으로써 『丙子日記』는 가히 가계부의 원조라 할 만하다.

⑤ 『丙子日記』의 작자는 거의 매일같이 꿈꾸는 여성이다. 하지만 그 꿈은 『금오신화』나 『구운몽』에서처럼 세계관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개인적/시대적 상처가 한의 콤플렉스로 되어 꾸는 생리적 꿈이다. 꿈은 주로 남편에 관한 것인데 꿈을 꾸고 난 뒤 그녀가 하는 말은 ‘마음 든든하다’가 대부분인 점으로 미루어 얼마나 가족상실의 불안에 강박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⑥ 『丙子日記』의 작자는 봉제사, 접빈객, 가사 지휘, 농사 감독, 자연 종교의 가내 여사제로서 살림꾼 주부였지만 병자호란 때문에 피난지를 전전하는 가운데 젠더공간이 확대,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 그러나 모처럼의 열린 공간에서의 갖가지 체험에도 불구하고 유교 가부장사회 남성에게 ‘길들여진 여성’으로 되돌아온다. 그녀의 체념은 17세기 한국사회가 어느 시대보다 주자학적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던 시기였고 여성에게 인종의 미덕 따위를 진리담론으로 내세우면서 ‘남성이 바라는 여성’을 강요한 결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른바 체관이란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인의 생활철학이었던 점에서 고전문학을 페미니즘적 독법으로 읽을 때 봉착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